

문화재와 법: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의 역사적 가치

32230811 김수인

< 목차 >

1. 석주선기념박물관을 답사하게 된 이유
2. 석주선기념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가치
 - 1) 제1전시실
 - 2) 제2전시실
3. 박물관 답사 후 느낀 점

1. 석주선기념박물관을 탐사하게 된 이유

어느 박물관을 답사할지 고민하던 중, 우리 학교에도 박물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재학 중인 학과는 정보 통계학과로 단국대학교 입구에 자리 잡고 있는 소프트웨어 관과 미디어 관에서만 수업을 듣기 때문에 박물관이 있는지 몰랐다. 단국대학교에 다니면서 우리 학교 박물관의 존재조차 몰랐던 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그래서 오르페오 음악박물관, 수원광교박물관, 경기도 박물관 등 여러 후보 중 최종적으로 석주선 기념박물관으로 결정했다.

2. 석주선기념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가치

석주선 기념박물관의 입구에는 한 쌍의 돌 호랑이상이 박물관을 지키고 있다. 이것은 조선 제11대 임금인 중종(中宗)의 계비 장경왕후(1495-1515)의 초상치인 희룡에 배치되었던 석물이다. 기념관 입구 주변에는 단국대학교 설립자 범정 장현 선생의 산소 의물 및 각종 석물이 있다.

석주선 박사는 박물관을 건립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4년마다 저축하여 17억 원을 마련해 단국대학교에 기부했다. 대신 조건이 있었는데 첫째, 박물관의 명칭을 <석주선민속박물관>으로 할 것. 둘째, 석조선 박물관장으로 임명 교수 최고봉으로 대우해 주며 사택 제공 연구원 임명 권한을 줄 것. 석주선 박사는 이 두 가지를 조건으로 내세우며 “하늘이 서로 만나게 인연을 맺어 주었다”라고 말했다.

1) 제1전시실

제1전시실은 선사시대부터의 중요 유물을 우리나라 역사의 흐름에 따라 전시했다. 박물관 개관 이후 지표와 발굴 조사를 통해 수집하거나 출토된 각종 토기, 철제와 금속 유물, 도자기 등과 안중근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한반도는 기원전 약 70만 년 전부터 돌로 도구를 제작하는 구석기시대(舊石器時代)가 시작되었다. 인류의 첫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시기로 tj 석기의 발달

에 따라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전시실은 주먹도끼, 격지, 찌개, 뚜르개, 팔매돌, 굽개, 새기개 등이 전시되어 있다. 이 유적들은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에서 발견된 유적으로 1989~1994년까지 단국대 중앙박물관이 발굴한 것에 의의가 있다. 직물 기술이 개발되면서 인류 문화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시대인 신석기시대(新石器時代)에는 원시공동체 사회가 형성되었고 이것을 증명해 주는 유물로 움집과 씨족이 있다. 전시실에는 빗살무늬토기와 각종 조가비 그리고 갈판과 갈돌, 조가비 팔찌, 돌도끼, 화덕자리, 반달돌칼, 돌대패, 가락바퀴 등 신석기 시대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유적들이 있다. 이 유적들은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구평리에서 발굴된 것으로 1967년 단국대학교 박물관에서 직접 발굴 조사했다. 또한 천연성을 보이고 있어 경상남도 남해안 일대의 중요한 신석기시대 문화로써 가치가 있다. 인류가 처음으로 청동 주조 기술을 알게 되어 청동기를 생산하게 된 청동기시대(靑銅器時代)의 유물로는 구멍무늬토기, 간돌칼, 화살촉, 동검이 전시되어 있다. 이는 청동기시대 사람들이 강가의 언덕에 움집을 짓고 살았으며, 농경과 어로 생활했던 것을 증명 해주는 역사적 자료이다. 또한 채문토기(彩文土器)는 청동기시대부터 만들어졌는데 처음에는 가지 무늬 같은 단순한 무늬에서 점차 기하학무늬나 동물무늬를 그렸다. 무늬의 정확한 의미를 현재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토기의 연대를 알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로써 문화의 발달과 전파 과정을 살피는 중요한 학술적 자료이다. 전시실에는 다양한 크기의 채문 굽 항아리들이 전시되어 있다. 신석기시대부터 제작된 토기는 흙으로 용기의 형태를 만들어 건조한 것으로 삼국시대에 들어와 다양한 형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토기는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뿐 아니라 경제와 신앙적인 측면도 보여주기에 학문적 가치가 크다.

신라 토기는 원삼국시대 토기 제작 기술에 새로운 제작 기법이 가미되며 발전했으며 대부분 회청색경질토기이다. 경질토기는 표면을 단단하게 두드린 후 물레로 모양을 잡았으며 흡수성이 거의 없다는 특징이 있다. 전시실에는 바리, 작은 병, 손잡이 굽다리 잔 등이 신라시대를 표현해 주는 토기로 전시되어 있다. 공간적인 분포가 넓어지는 양상을 보이는 백제 토기는 타날문수법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실용성이 강조되었다. 주로 세 발 달린 토기가 많이 발견되는 것이 특징이며 두 귀 항아리, 곧은 목 항아리, 샷자리무늬 항아리 등이 전시되었다. 신라시대와 비슷한 점이 많은 가야토기는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김해, 대구 등에서 많이 출토된다. 사람이나 동물, 수레나 집을 묘사한 것이 많고 방울 달린 잔과 같은 특이한 토기도 많이 나온다. 또한 표면에 기하학적인 무늬가 많다. 굽다리 뚜껑접시, 자라형 토기병, 꼭지형 돌기항아리등이 전시되어 있다.

2) 제3전시실

제3전시실에는 석주선 박사의 오빠인 석주명(石宙明, 1908-1950)과 우리나라의 전통 의복이 전시되어 있다. 나비 박사 석주명은 약 60여만 마리의 나비를 채집하고 우리나라의 나비 종류를 정하고 순수한 우리말 나비 이름의 70% 이상을 지었다. 전시실에는 그의 실유증명서, 명함(해방 전은 일본어, 해방 후에는 영어가 같이 쓰여있음), 신분증명서, 등본, 과학기술 유공자증서 등이 전시되어 있다. “나는 조선 나비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며 스스로를 소개한 석주명은 우리나라 나비의 아버지라고도 할 만큼 생물학의 한 획을 그은 인물로서 역사적 가치가 크다.

전시실에는 국가의 조회나 잔치에 입는 옷인 조복, 청초중단, 적초의, 관이 전시되어 있으며 입는 단계까지 명시해 주고 있다. 큰머리와 쪽머리 등을 크게 하기 위해 1800년대에 사용한 다리와 쪽머리 용 가채, 비녀 등이 전시되어 있다. 또한, 조선 마지막 공주인 덕온공주(德溫公主, 1822-1844)의 집안 유물 200점이 전시되어 있다. 덕온공주는 23대 왕 순조(純祖, 1750-1834)의 막내딸이다. 덕온공주의 자라춤치 노리개, 원삼, 1847년 혼례 때 입은 의복, 16세 명절 때 입은 자적당의, 자고리, 등다리군복등이 전시되었다. 덕온공주의 옷차림을 비슷하게 재현한 마네킹도 있기에 우리나라의 마지막 전통성으로서 큰 가치가 있는 유물이다. 양반의 옷을 서민의 혼례복으로 허락해 주었던 혼례복(婚禮服)은 신랑은 관복, 신부는 활옷이나 원삼 등이 전시돼 있는데 지방마다 특색이 있음을 잘 보여준다. 먼저 개성지방은 꽃을 연상케 하는 독특한 머리 장식이 유행했다. 분홍색과 빨간색이 주를 이루어 신부의 얼굴이 돋보이게 해준다. 전라도 지방은 농사가 많아 남색 원삼이 유행했으며 양반들은 궁중의 양식을 선호했기에 왕실용 혼례복이 서울에 유행했다. 일반원삼은 양반의 것보다 크기가 작고 금박 장식이 없는 대신 소매에 여러 색의 색등을 단 것이 특징이다. 덕온공주가 입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확실히 화려함보다는 단아함이 더 돋보인다. 이것은 조선시대가 신분사회였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서민들의 제약이 많았음을 보여줌으로써, 역사적 가치가 있다. 혼례용 가마는 신붓집에서 혼례를 마친 후 시댁으로 가는 신행 때 타고 가는 가마다. 가마 지방에 나쁜 잡귀의 접근을 막기 위해 호피나 호피 무늬 이불을 얹은 것이 특징이며 신부가 밖을 볼 수 있게 창이 양옆으로 나 있다. 이 밖에도 조선 시대 때 추위에 대처하기 위한 의복인 불끼, 남바위, 아얌등이 전시되어 있다.

또한 전시실에는 해병윤씨 소년미라가 전시되어 있다. 이 미라는 1600년대 전 반으로 추정되며 부모의 장옷을 여러 갈래로 잘라 시신을 덮고 감싸준 상태였

다. 밑이 트인 바지와 누비 중치막 2점을 수의로 입고 있었다. 염습상태 순서는 아버지 중치막 일부 3점을 넣은 후 관내의, 지요, 아버지 중치막 일부 5점, 배넛저고리, 어머니 장옷과 아버지 누비바지, 베개와 어린이 중치막, 소의 입은 소년미라, 아버지 중치막 1점을 넣었다. 단국대학교를 비롯해 여러 대학교에서 공동연구를 진행한 결과 6살 봄인 5월에 질병에 걸려 사망했음이 밝혀졌다. 그리고 소년미라를 보존하기 위해 합성 수지화에 성공했으며 이를 통해 영구적인 보존과 일반전시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또한, 어린 자식을 떠나보내는 가족의 애통함을 느끼게 해줌으로써, 가족이 주는 가치는 현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외교와 민주주의의 선구자 장면 박사(張勉, 1899-1966)의 소지품도 전시되어 있다. 장면 박사는 구한말에 태어나 일제 치하에서 서구 학문을 익혔으며 광복 후 유엔총회 대표로 파견돼 대한민국의 국제 승인을 받았다. 또한, 6.25전쟁에서 유엔군의 참전을 이끈 위대한 역사적 인물이다. 그 후 미국 초대 한국 대사, 부통령, 내각제 총리로 지내다 생을 마감했으며 장면일가가 복식 유물 총 400점을 단국대학교에 기증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었다. 장면박사가 금혼일을 위해 쓴 친필 기도문, 평생을 간직한 묵주, 친필로 쓴 자녀일람, 가족사진, 외교관 여권 제1호, 미국 대사 신임장 등이 전시돼 있으며 우리나라의 광복을 도모하고 미국 초대 한국대사로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역사적 인물이기에 엄청난 문화적 가치가 있다.

3. 박물관 답사 후 느낀 점

나는 박물관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어린 시절 선생님의 손에 이끌려 박물관에 가는 것이 지루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단국대학교 석주선박물관을 답사하고 나니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박물관 그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어째서 우리가 문화재를 보존하고 유지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연구해야 하는지, 발굴해야 하는지,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다. 과거에는 현재가 들어있다. 역사 속에는 지금을 가능케 한 이유가 들어있다. 과거를 알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그렇기에 문화재는 끊임없이 연구해야 하며, 보존해야 하며, 알려야 한다.

다만 아쉬웠던 것은 전시실을 다 돌아보지 못했다는 점이다. 답사를 갔을 때 점검 중이라서 1전시실과 3전시실만 볼 수 있었다. 1전시실은 열린전시실이라 사진 촬영이 가능했지만 3전시실은 사진 촬영이 불가해 메모장으로 하나하나 다 쓰면서 2시간 동안 돌아봤다. 박물관에 쓰여 있는 설명을 그냥 지나치기만 했는데 하나하나 읽어보니 긴 역사 중 가장 중요한 부분만 함축되어 담아두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다음에는 경기 박물관에 가볼 것이다. 교양과목 덕분에 좋은 것을 얻게 된 것 같다.

